

울산, 석유화학 수출 대폭 증가

5월 12억9000만달러로 46.09% 늘어 ... 석유제품 · 자동차도

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는 “2011년 상반기 수출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500억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 것”이라고 6월27일 전망했다.

무역협회에 따르면, 2011년 5월 수출이 92억7000만달러로 2010년 5월에 비해 59.3%, 1-5월 수출누계는 413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7.8% 증가했다.

5월 수출은 석유제품이 26억4000만달러로 60.1%, 석유화학제품은 12억9000만달러로 46.9%, 자동차는 13억6000만달러로 31.2% 증가했다.

자동차부품과 선박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.

무역협회 관계자는 “2011년 들어 5개월간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50% 육박하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”며 “현재와 같은 신장세가 유지된다면 상반기에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500억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06/27>